

이스라엘의 왕

* 6/9(수) 사무엘상 ③ 11-14장

사무엘 1-7장	사울 8-15장	사울과 다윗 16-31장
<p>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3장</p> <p>여호와와 언약궤와 전쟁 4:1-11</p> <p>엘리 가문의 몰락 4:12-22</p> <p>언약궤의 행방 5:1-7:2a</p> <p>회개와 부흥, 에벤에셀 7:2b-14</p> <p>사사 사무엘의 활동 7:15-17</p>	<p>사무엘의 아들들 8:1-3</p> <p>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여호와와의 응답 8:4-22</p> <p>▶ 이스라엘의 왕 사울 9-1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기름 부음 ·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힌 사울 · 암몬과의 전쟁,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사울 <p>▶ 사무엘의 고별사 12장</p> <p>▶ 사울의 통치 13-15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울의 제사와 사무엘 · 사울의 금식 명령과 요나단 · 사울의 아말렉 공격과 불순종 · 후회하시는 하나님 	<p>다윗의 등장 16장</p> <p>다윗과 골리앗 17장</p> <p>다윗과 요나단 18:1-5</p> <p>사울의 폭주, 다윗의 도피 18:6-30장</p> <p>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p>

Before 즐치며 읽기

주님의 일을 하며
범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내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11:6).

• <구원의 도구>, 이스라엘의 왕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 위협에
사울은 백성들을 모집하여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왕으로서 처음 맞는 전쟁이자 국가의 위기에 대처합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에게 기대되는 두 가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삿 2:16, 3:10).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내부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15, 삿 4:5, 삼하 15:4). 전쟁과 평화 모두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준에 합한 왕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두말없이 인정합니다.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위기가 사울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위기 가운데 간섭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11:3, 9, 13).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마다 세우신 <구원의 도구>는 달랐지만, <구원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 <구원의 주어>,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은 이 사실을 그의 평생에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새 시대, 새 일꾼을 맞이하며
사무엘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12:20-21, 수 23:6-8, 1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를 선언합니다(12:14-15, 24-25).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12:23).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여호와와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 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자,
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 사울, 도구에서 주어로 주객전도(主客顛倒) 된다.

사울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은 자그마치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 그리고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떨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왕 사울, 그에게 또 다시 왕에게 기대되는 직무가 요구됩니다.

<번제>는 생명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나눔과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 자체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어떤 ‘절차’ 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다가
큰 곤란에 빠진 전력이 있습니다(4:3-4, 10-11).
사울이 그 때와 비슷하게 제사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 으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제사장 사무엘이 아닌 자신이 직접 집례를 합니다(13:9).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I am my own god.)’ 이라는데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my claim to my right to myself)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울의 범죄입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에 의해 끔찍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13:13-14).

주님의 일을 하며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